

소노 아야코 지음
오경순 옮김
리수
286쪽
값19,800원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 소노 아야코의 계로록》

‘나이듦’ 의 미학

글_ 김현주 도서출판 리수 기획마케팅팀

필자가 ‘계로록(戒老錄 늙음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원제를 가진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다. 출판계약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부터 2년 전에 출간되다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이 됐다.

굳이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 편집자로서 필자의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기도 하거니와, ‘서서히’ 이 책에 중독되어 가는 독자들의 윤곽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서서히’ 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마치 아침밥이 소화되어 점심때쯤이면 배가 고파지듯, 아이들이 자라듯, 나이를 먹듯 너무나도 당연해서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새 몸에 배는 습관들처럼 이 책은 필자 이야기이며, 어머니의 인생이자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우리네 일상속에서 또 인생에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묘미는 생각보다 꽤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자인 소노 아야코에게는 ‘나이듦’에 대한 두 권의 대표작이 있다. 그 하나가 이 책이고, 다른 하나가 《행복하게 나이드는 비결-소노 아야코의 중년이후》다. 이 두 책의 탄생은 어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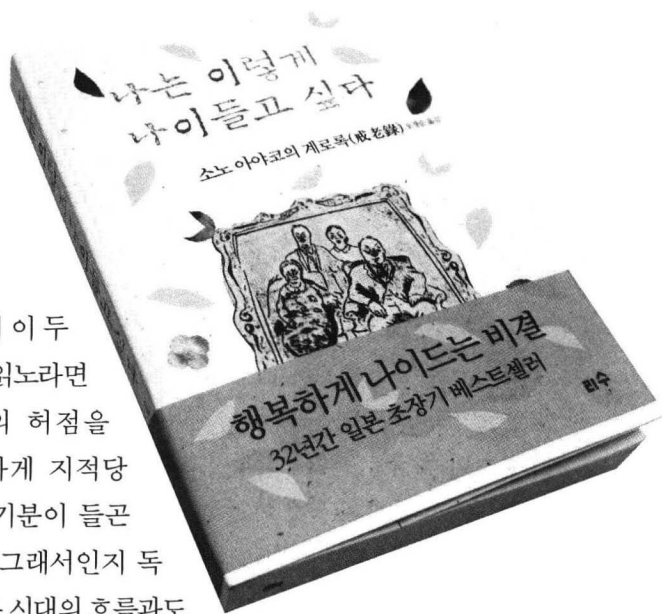
소노 아야코는 70대인 노년에 중년의 가치를 다룬 《행복하게 나이드는 비결-소노 아야코의 중년이후》를 쓴 것과 달리, 아주 오래 전 40대에 노년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소노 아야코의 계로록》을 펴냈다.

늙음을 경계하는 쓴 소리를 더 젊었을 때 쓰고,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한 후에 나이듦의 이론 편을 쓴 셈이다. 나이듦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을 통해 표현한 덕분인지 소노 아

야코의 이 두 책을 읽노라면 자신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당하는 기분이 들곤 한다. 그래서인지 독자들은 시대의 흐름과도 무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서서히 형성해가나 보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늙음을 자각할 것’,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사치레는 포기할 것’, ‘평균 수명을 넘어서면 공직에 오르지 말 것’ 등에서부터 소소하게는 ‘짐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저녁에는 일찌감치 불을 켜 것’, ‘자주 씻을 것’,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건을 줄여 나갈 것’, ‘화장실 사용시 문을 꼭 닫고 잠글 것’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전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들을 읽노라면, 저자는 분명 험오스런 노인을 보았거나, 생각보다 귀여운 노인을 보았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툼툼이 메모해 놓았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인생은 희망과 연륜의 반비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젊었을 때는 희망의 비중이 크지만 중대한 일을 결정해 나가기에는 그 연륜이 터무니 없이 짧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깊은 연륜으로 인생의 참맛을 음미할 능력을 갖출 즈음에는 남아 있는 희망들이 소박할 따름이다. 누구나 이 절묘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피할 수 없는 ‘나이듦’의 존재가 새삼 경이롭게만 느껴진다. **리수**



이철환의 《보물찾기》

마음에 담긴 보물상자를 꺼내어 보다

글 정민숙 꽃삼 편집부



오래 전 국내 유명 소설가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우울한 마음을 환기도 할 겸 책을 집었는데 그 소설을 읽은 후 나는 오히려 몇날 며칠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며 고생해야 했다. 책 한 권이 몇날 며칠을 좌우할 수 있을까? 그렇다. 정말 좌우되었다. 그 책은 내 마음을 삭막하게, 영혼을 메마르게 했고, 나에게 독이 되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책이 어떠한지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마음을 촉촉하게,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책 말이다.

《연탄길》로 잘 알려진 작가 이철환. 그의 책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그의 책을 읽고 나면 삭막했던 마음도 촉촉해지고, 갈기갈기 찢긴 영혼도 다시 소생케 된다. 이런 작가의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철환 작가는 투명한 사람이다. 그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그의 글과 그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의 글에 나타난 진정성과 맑음은 그의 말과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은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의 열심에 감복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을 보면 글쓴이와 그림이가 한 사람이 아닐까 싶게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졌음을 느끼게 된다. 이철환 작가와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유기훈 선생은 한 세트라 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글과 그림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인생은 소풍이다’라는 부제를 단 《보물찾기》. 이 책은 전작 《곰보빵》과 궤를 같이한다. “인생은 소풍날처럼 기대되고 행복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게 인생이지만 이것 역시 인생의 길을 만들고 나 자신을 만든다.

누구에게나 보물 같은 사람들, 보물 같은 추억들이 있다. 이 책은 소중했던, 또 감사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 자식이 밥 한끼 거를까, 몸 상황까 걱정하는 어머니, 몸이 아픈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선생님, 어렵고 힘겨운 시절 알게 모르게 도와준 많은 분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 고마운 것들이 민들레처럼 많음을 알 수 있다. 감사를 회복하면 삶을 소풍날처럼 기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인간이 왜 아름다운가를, 왜 인간이 아름다워져야 하는가를, 오직 사랑만이 인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험한 세상살이에 힘겨워, 지칠 때 우리네 삶 구석구석에 묻어둔 작은 보물 상자를 찾아나서 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보물상자를 하나씩 꺼내 열다 보면, 어느새 위로받고 행복해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슈니더윈드 지음
박정연 옮김
에코리브르
400쪽
16,500원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

구약성경의 탄생 비밀에 접근하다

글_ 김영옥 에코리브르 편집팀장

서점의 종교서 코너에 가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내용이 다를 리 없을 텐데도 성경의 종류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하다. 그렇다면 성경에 ‘관한’ 책은 어떻게? 대개는 성경 해설서이고 간간히 역사적 사실성 여부를 따지거나 성경의 변천사를 다룬 책들이 보일 뿐이다. 성경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빈곤하다. 이는 ‘질문’을 꺼려하는 우리의 종교문화와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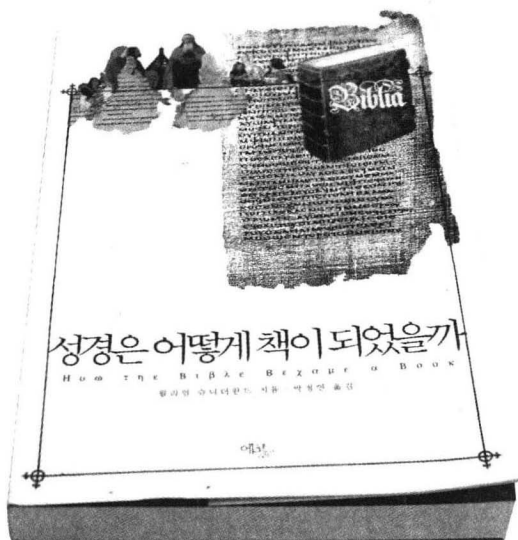
그런데 성경을 주제로 한 책은 한결같이 ‘성경=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아무도 여기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올해 나란히 우리말로 번역된 《성서의 역사》(미메시스), 《성경 왜곡의 역사》(청림출판)도 주로 책으로서의 성경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빠져 있다. 바로 성경의 ‘형성사’이다. 과연 성경이 처음부터 책이었을까? 아니다. 성경은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다 서서히 기록되어 책이 되었다. 이 형성사의 빈 페이지를 채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이다. 여태까지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책은 많았지만, 성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다룬 책은 거의 없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책은 최초의 구약성경, 특히 그 핵심인 토라(모세 오경)가 언제 어떻게 글로 기록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이 책의 한국어판이 출간되는 데는 무엇보다 저자인 윌리엄 슈니더윈드 교수(UCLA 근동언어문화학과)의 박사과정 제자인 역자의 공이 컸다. 역자 박정연 씨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성경과 고대근동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슈니더윈드 교수의 지도 아래 히브리 성경

을 전공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이다. 저자에게

강의를 들던 중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한 역자는 원서를 펴낸 케임브리지 출판사에 먼저 한국어판 출간 의사를 타진했고, 에이전시를 경유하여 결국 우리 출판사와 연결될 수 있었다.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은 필요치 않았다. 우선 학술적 가치가 분명했고(특히 구약성경 주요 책들의 최초 기록 시기를 규명한 점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도 국내에 마땅한 관련서가 드문 성경의 형성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용도 단순한 종교서가 아니라 인문 교양서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구약의 최초 기록 과정을 살피는 일은 고대 유대인의 종교뿐만 아니라 구전문학인 성경의 원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지방의 역사와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고,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이행하는 문자 혁명의 도정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 책은 성경의 문자화 과정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구전된 토라와 기록된 토라의 갈등과 경쟁, 성경의 기원을 둘러싼 성경학계의 논쟁 등 고고학과 성경학의 흥미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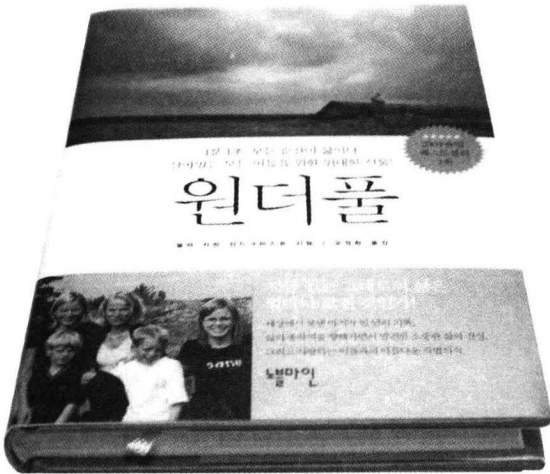


올라 카린 린드크비스트 지음
유정화 옮김
노블마인
264쪽
값 9,800원

《원더풀》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름다운 일상의 기록

글_ 채영희 노블마인 대표



《원더풀》의 저자 올라 카린 린드크비스트는 스웨덴의 잘나가는 방송국 앵커로, 저명한 외과의사의 아내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로 바쁘고 행복한 삶을 살던 2003년 봄에 루게릭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했으나 2004년 3월 끝내 세상을 떠난다.

나는 이 책을 2005년 겨울이 들어서던 무렵에 처음 만났다. 이 책은 분류하자면 투병수기에 속하는데, 이런 종류의 책들 중 많이 팔리는 책들은 대개 ‘가난’ 과 ‘소외’ 속에 눈물겨운 투병생활을 거쳐 건강을 되찾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는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원더풀》은 이런 공식의 정반대에 놓여 있었다. 《원더풀》의 저자는 스웨덴의 훌륭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가족과 친구, 의료인들의 관심 속에 투병을 하다가 결국 루게릭 병으로 판명된 지 꼭 1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 책의 실린 내용을 ‘팩트’ 로만 보자면 그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출간 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최종적으로 출간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은 저자가 투병 기간 동안 담담하게 적어나간 일상의 기록에는 살아갈 삶을 앞에 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밑줄을 그을 만한 문장이 꽤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후, 한글로 번역된 원고를 처음 받아든 편집자와 나는 스웨덴의 그 훌륭한 복지혜택 덕분에, 그리고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 애정이 너무도 아름다운 투병생활 덕분에 그 1년간의 삶이 주는 감동이 적으리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가 병마와 싸우며 죽음 앞에 놓인 현재를 매 1초

마다 소중히 살아나간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숙연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상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자 코로 조절하도록 특별 고안된 컴퓨터로 일기를 써나갔던 올라 카린. 이 책의 제목 《원더풀》은 딸 울리카가 알파벳을 적어 올린 판을 들어올려 엄마가 눈을 깜박이는 알파벳을 받아 적은 울리 카린의 마지막 말이었다. W-O-N-D-E-R-F-U-L.

편집 방향은 독자들도 우리가 느낀 감동을 가감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했다. 콘텐츠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타깃을 확장하려는 통상적인 출판편집의 테크닉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다.

그렇게 해서 책이 출간되었고,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6개월 전 위암 진단을 받았던 그 친구는 남편과 두 아이를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났다. 그 친구의 영정을 마주했을 때 나는 올라 카린처럼 삶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가족과 잘 정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친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저 너머 다른 삶을 향해 떠나간 친구의 생각에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던 버지니아 울프의 말처럼, 친구는 나를 포함한 가까운 친구들에게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책 속의 올라 카린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심각한 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이나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라 카린의 이야기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위로 받을 소망한다. ☞